

여섯달동안 일어난 큰 변화

2022년 10월 15일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 45분경, 나는 재속프란치스코회 미국 국가형제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대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표를 던졌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 보면, 차기 국가형제회 평의회원 선거에 나는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나는 이미 국가형제회 서기로 6년을 봉사해 왔다. 나는 첫 소명인 남편(Brian)과의 결혼 생활 32년 중 두번째 소명인 재속회원으로서의 27년을 살고 있으니 남편은 프란치스코 4 회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기관 직책이 물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봉사직이지만, 개인시간을 너무 빼앗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휴식이 좀 필요했다. 나와 남편은 이번엔 좀 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아무도 나를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2022년 7, 8월 미사 중 성서봉독에서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맡길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내용이 여러 번 있었다. 우리는 이점을 여러 번 나누었고 “하느님께서 내게 봉사하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묵상하였다. 남편이 즐겨 하는 말은 “하느님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었다. 잘 생각해 본 결과, 하느님이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선출된다면, 하느님의 뜻이니 하느님께서 책임지고 내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고.

마침내 후보가 되기로 했다. “그래, 적어도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란 것을 아시겠지.....하지만 뽑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주일 후, 모든 평의회직에 의외로 많은 후보자가 신청한 것을 보고 은근히 기뻐다. 모든 직책에 유사 이래 가장 많은 후보자가 신청했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전국에서 온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다. 분명히 나 아닌 누가 될 거야.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달랐고, 결국은 내가 전국에 걸쳐있는 12,000 명의 형제자매들의 재속프란치스코회의 회장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그 임기가 “기간제”¹ 라는데 안도한다. 이 직책을 안 맡았으면 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봉사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점 또한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나와 함께 봉사 할 평의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에 Dianne Menditto, 서기에 Susan Ronan, 회계에 Claudia Kauzlarich, 국제담당 평의원에 Mary Frances Charsky. 또 그냥 평의원으로는 Cherryle Fruge, Donna Hollis 와 Joshua Molitor 가 선출되었다. 그 밖에 작은형제회 Chris Shorrocks 신부님이 국가형제회 영적보조단의 순환 단장으로 나와 함께 봉사하게 되었다.

1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칙 제 21 조: “각 등급의 모든 형제회는 회헌에 따라, 서약한 회원이 선출한 평의회와 회장(또는 의장)에 의해 촉진되고 이끌어 진다. 이들의 봉사는 기한부이며, 모든 회원과 공동체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고 책임이 따르는 직무이다.”

전임 회장 Jan Parker 와 전임 부회장 Marry Bittner 의 국가형제회를 위한 13 년간의 훌륭한 봉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두 분의 놀라운 지도력은 정말 모두의 모범이 되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 분들의 재속회에 대한 사랑, 보살핌과 헌신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임 국제담당 평의원 Awilda Guadalupe 와 전임 평의원 Dennis Ross 에게도 오랫동안의 봉사와 돌봄에 감사 드리고자 한다. 위에 언급된 네 분들은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봉사를 할 때까지 좀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총회에서 국가형제회 평의회는 (소명, 소통, 관계성)이란 우선순위를 채택했고 “경청, 식별, 실천” 을 2022-2025 년도의 주제로 정하였다. 우리 임기 중, 특히 이 첫 해에 우리는 회원들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위하여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한다. 이 우선순위와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타우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선거총회가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 나는 Detroit 에서 90 마일 떨어진 Lansing 에서 태어났다. 총회를 마친 후 가족들과 같이 그곳을 가 보았다. Brian 과 결혼한 곳도 여기이다. 내 첫번째 소명에 응답한 (결혼 한) 곳에 가서 두번째 소명인 (재속회 봉사)를 더욱 굳건히 다짐하는 것이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St. Mary 성당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했다. “재속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신임 평의원들과 우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다. 사실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재속회 봉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남편은 나와 함께 공동회장이 될 것이다.

New Mexico 주 Rockwell 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들은 안내 방송의 마지막 부분이 신임 평의회가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여행하시는 동안 승객여러분들을 보살펴 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여섯 달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 3 년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여정을 고대한다.